

할리우드, A급 배우에 대한 반신반의



〈디스트릭트 9〉

최근 들어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A급 스타 배우들을 자사의 영화에 기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흥행작들 중 무명배우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둔 작품들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반

면 A급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 가운데 흥행에 참패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 바람에 스튜디오의 이런 결심은 당분간 더 확고해질 전망이다.

2009년은 특히 이런 사례들이 많은 한 해였다. 4억 6,000만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낸 〈더 행오버〉를 시작으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디스트릭트 9〉, 최근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넘긴 〈파라노말 액티비티〉까지. 이 세 작품 모두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기용했지만 배우가 아닌 스토리와 콘셉트로 승부, 엄청난 흥행 수익을 낸 화제작이 됐다. 유명 배우를 쓰지 않고 거액의 출연료가 소요되지 않은 까닭에 세 작품 모두 스튜디오 평균 제작비의 1/3 이하로 제작되었다.

반면 올 개봉작 중 A급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했음에도 흥행은 커녕 제작비 회수조차 어려웠던 작품도 여럿이다.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한 〈씨로게이트〉, 아담 샌들러의 〈피니 피플〉, 윌 페럴의 〈로스트 랜드: 공룡왕국〉, 에디 머피의 〈이매진 댓〉, 줄리아 로버츠의 〈더블 스파이〉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의 A급 스타 배우는 대체로 영화당 출연료 1,500만 달러 이상을 받

는다. 여기에 초특급 스타의 경우, 작품 전체 수익의 20%까지 지분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이름 값만큼 영화 흥행 수익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상관관계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최근 가장 바람직한 배우 캐스팅 사례로 평가되는 작품은 전세계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트와일라잇〉 시리즈다. 파라마운트사에서 서밋으로 판권이 넘어간 이 프랜차이즈는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다면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갔을 게 분명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서밋은 당시 무명의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투어트를 캐스팅, 3,700만 달러로 제작비를 크게 절감했고,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1편의 흥행 덕에 스타로 도약한 배우들을 필두로 11월 20일 개봉한 〈뉴 문〉(제작비 5,000만 달러)은 개봉 첫 날 무려 7,27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북미 박스오피스 역사상 오픈링 첫 날 스코어 중 가장 높은 수익이다.

Hot News



디즈니의 새로운 수익 창구, 키체스트



최근 엄청난 속도로 사업 확장과 축소를 진행해온 월트디즈니가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월트디즈니 그룹 밥 아이거 회장은 영화산업 수익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른 수익 창구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할리우드와 디즈니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새로운 수익 창구의 일환으로 '키체스트(Keychest)'라고 알려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부가시장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키체스트는 소비자가 특정 영화에 대한 디지털 커피를 구입하면, 또 다른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플랫폼(TV, 모바일, 게임기 등)에서 영구적으로 영화를 교차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격변하고 있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오 중에서 가장 과감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을 꺾고 있는 디즈니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더 많은 수익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투자에 대한 스튜디오 간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금융정보회사 SNL 카간(SNL Kagan)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작비 1억 달러 이상의 영화가 평균 2억 4,700만 달러의 수익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가 중급 규모의 영화(제작비 5,000만 달러 내외)보다 스튜디오에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연구 분석이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SNL 카간이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에 올린 작품들은 2004~2008년까지 1,0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배급된 영화들이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제작비 9,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들의 경우 평균 1억 1,80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장르별로 수익 순위도 분석 정리했는데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장



2억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업〉

르는 2억 2,100만 달러의 수익을 낸 애니메이션,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낸 장르는 1억 2,500만 달러 수익을 낸 SF와 판타지다.

한편,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장르는 평균 1,790만 달러의 수익을 낸 호러와 1,370만 달러의 평균 수익을 낸 스틸러로 분석됐다. 총 764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는, 지난 4년 동안 1억 달러 이상(P&A비 제외)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83편으로 집계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할리우드의 관객 수는 5.1% 성장했고 박스오피스 매출 역시 7.3% 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부가판매 수익인 DVD 판매시장은 작년 대비 6.8% 정도 수익이 하락했다. 이는 1달러 DVD 렌탈 서비스인 '레드 박스'와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OCUS ON

AFM이 주목한 세 편의 영화



〈애프터 라이프〉

얼마 전 막을 내린 아메리칸필름마켓(AFMM)에서 주목받은 영화 세 편이 화제다. 마켓 바이어들에게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작품은 〈에어리어 5〉. 초저예산으로 역사적인 흥행몰이 중인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의 감독 오렌 펠리가 연출하는 〈에어리어 5〉는 주인공들이 외계인에 대한 현상을 파헤친다는 내용의 SF 호러 스릴러물이다.

〈에어리어 5〉의 뒤를 이어 인기를 얻은 작품은 리암 니슨, 크리스티나 리치가 출연하는 스릴러물 〈애프터 라이프〉. 이 작품은 현지 프리미어 반응이 무척 좋았다는 평가다. 마지막은 3D 댄싱영화 〈스트리트 댄스〉다. 할리우드의 전반적인 불황 탓일까. 올해 아메리칸필름마켓은 작년 소니가 구매해 흥행에서 엄청난 재미를 본 〈디스트릭트 9〉와 같은 깜짝 흥행작을 찾으려는 마케터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NBC 유니버설, 매각 가격 차이로 인수 '주춤'

최근 할리우드의 가장 큰 인수합병 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컴캐스트와 GE의 NBC 유니버설 인수 계약이 성사 직전 난관에 봉착했다. 이유는 현재 NBC 유니버설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미디어그룹 비방디와 80%의 지분을 가진 GE 간의 매각 가격 차이 때문이다. NBC 유니버설을 인수, 경영할 계획이었던 컴캐스트는 미국 내에서만 2,400만 케이블 가입자와 1,530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가진 미국 최대 케이블 기업. 시나리오대로라면, GE는 비방디 그룹의 20% 지분을 전량 재매입, NBC 유니버설의 49% 지분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51%는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매입,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 GE는 최근까지 비방디 그룹과 지분 매각 가격을 우호적으로 협상하면서 매우 근접한



선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밝혀진 컴캐스트와 GE가 산정한 비방디의 지분 매각 가격은 54억~60억 달러 수준.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통신업체 GVT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지분을 매입하면서 거액의 거래 대금이 필요해진 비방디 그룹이 최소 63억 달러 이상의 매각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GE와 비방디가 지분가에 대해 최소 5억~10억 달러에 달하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컴캐스트와 GE가 책정한 NBC 유니

버설의 전체 인수액은 300억 달러다. 이는 2007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월스트리트 저널(WSJ)을 5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거대 미디어 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300억 달러 인수 금액은 비방디의 20% 지분이 60억 달러로 매각된다는 조건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현재 비방디 그룹은 63억 달러 이하로는 NBC 유니버설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BC 유니버설은 지상파 방송인 NBC, 경제전문 채널 CNBC, 유니버설영화사 등을 소유한 회사다. 케이블 회사가 지상파 TV 채널과 메이저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이번 거래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할리우드에 또 다른 M&A 후폭풍이 진행될지 모른다고 전망해 왔지만, 이 거대 계약은 일단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MGM, 매각 수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007> 시리즈 등을 내놓은 스튜디오 MGM이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다. 이유는 늘어난 부채와 경영 악화 때문. 1960년대부터 수익이 감소하기 시작해 수차례 인수, 합병, 매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난 빚은 현재 37억 5,000만 달러. 게다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만 3억 달러에 이른다. 결국 메인 주주들의 동의 하에 MGM 스튜디오는 몇 주 내 매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MGM은 그동안 경영 악화를 해결해 보고자 지난 여름, 스튜디오의 CEO 해리 슬로언을 해고하고 구조조정 전문가 스테판 쿠퍼를 기용하기도 했다. 4,000여 편의 영화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MGM의 새 주인으로 물망에 오른 회사는 워너브러더스사를 소유한 타임워너, 20세기폭스사를 소유한 뉴스코프, 라이온스 게이트 영화사 등이다. 그밖에 그동안 두 차례나 MGM을 사고 판 역만장자 커크 커코리안은 MGM의 로고만을 재매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3D 상영관 확보를 서두르는 극장주들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최대 호황기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극장주들이 좀더 많은 3D 디지털 스크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크리스마스 캐롤>(디즈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20세기폭스) 등 대형 3D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에 맞춰 극장 수익 극대화를 위해 3D 상영관 구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북미 극장의 경우 올 초 3D 상영관이 900여 개 정도였으나, 현재는 그 두 배를 넘어서는 2,000여 개로 늘어났다. 12월 18일 개봉하는 <아바타>의 경우, 20세기폭스 측에서 예상하는 3D 디지털 개봉관 숫자는 2,400~2,500여 개에 달한다.

3D 시설 구축에 관한 극장주들의 관심은 해외 쪽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북미를 제외한 세계시장의 3D 스크린은 약 3,200여 개 정도. 이는 2008년 1,000여

개였던 것에 비해 무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추정되는 전세계 3D 극장은 6,700여 개 정도로 미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 중 3D 개봉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영국과 중국이다. 두 나라는 각각 400여 개의 3D 스크린을 확보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380개), 독일(225개), 이탈리아(200개), 러시아(185개), 멕시코(180개), 일본(150개), 한국(120개), 호주(1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극장주들이 발 빠르게 3D 상영관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티켓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3D 영화 관객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메이저 스튜디오가 배급하는 3D 영화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개봉하는 팀 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시작으로, 2010년 배급 확정된 미국 스튜디오의 3D 영화는 현재 16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블록버스터들, <아바타> 피해 배급 조정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초특급 기대작 <아바타>의 개봉 일정 때문에 중국 내 자국 블록버스터 4편이 배급 일정을

조정했다. 내년 1월 1일, 중국 내 배급 예정인 <아바타>의 개봉일을 피해 원래 개봉하려고 했던 일정보다 조금 더 앞서 개봉 스케줄을 잡거나 훨씬 뒤로 개봉일을 미룬 것. 개봉일을 옮긴 작품들은 장이모우 감독의 리메이크 신작 <블러드 심플>(12월 11일),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속편 <풍운 2>(12월 10일), 주걸륜 주연의 어드벤처 영화 <자룡>(12월 9일), 닝 하오 감독의 신작 로드무비 <우 렌 큐>(2010년 3월) 등이다. 이들 자국 영화들이 앞다투어 개봉 스케줄을 조정하는 이유는 2D, 3D, 아이맥스 버전을 합쳐 중국 내 극장의 80% 정도가 <아바타>에 극장을 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부터 신정과 구정 연휴까지, 약 석 달에 걸친 연말 시즌은 중국 최대의 박스오피스 시즌. 이 기간 동안의 박스오피스 전체 수익만 2억~3억 달러 정도가 된다. 무섭게 팽창하는 중국 영화시장 안에서 <아바타>의 극장 수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바타>와 함께 연말 시즌 호황을 목표로 11월 개봉한 할리우드 작품들은 소니의 <2012>, <디스트릭트 9>, 디즈니의 <지포스> 등이 있다.

FOCUS ON

스파클러, CJ의 <비열한 거리> 리메이크



박스오피스 히트 시리즈 <내셔널 트레저>를 제작한 스파클러엔터테인먼트가 유하 감독이 연출한 <비열한 거리>

의 북미 리메이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는 <갯 썸>의 각본가 크리스 하우티가 맡게 됐다. <내셔널 트레저> <포트 노크> <스틸링 팀> 등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스파클러의 대표 찰스 세가스, 앤드류 번스타인이 미국 쪽 프로듀서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동 제작사로 참여하는 한국 CJ엔터테인먼트에선 테드 김이 프로듀서로 나선다.

새로운 리메이크작의 메가폰을 잡을 감독은 포레스트 휘테커, 케빈 베이컨 등이 출연한 범죄 드라마 <내가 숨쉬는 공기>를 연출한 바 있는 재미교포 감독 이지호로 낙점됐다. 출연 배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비열한 거리> 리메이크판은 2010년 북미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